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조이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여호와 하나님 (찬30/새14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제서 집사 2부/이범석 장로 3부/이상원 집사 4부/김에스터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그 사랑 얼마나 (편곡 안선)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이사야 53:4-6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1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기억하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은 날아가 버립니다

-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1) 시작의 시작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찬194장/새260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 Go Deeper, Go Higher
- *축도 Benediction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모태신앙, 못해 신앙? Cradle Faith, Can't-Do Faith?



이충경 목사 / Rev. Choong Kyung Lee

평안도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 받으신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저희 가정의 신앙은, 저와 자녀들에 이르는 4대(四代)에 걸쳐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가 없는 시골 농촌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던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혀 예배를 드리다 잠이 들고, 아버지 등에 업혀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듣고 자란 내용이란 교회와 성경, 목회와 관련된 것뿐이던 저는 소위 모태 신앙, 그중에서도 청교도적(Orthodoxy) 삶을 지향하던 모태 신앙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받으며 성령을 체험했고 성경도 잘 알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로 자살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말씀이 저의 삶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모님의 신앙이 꼭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 사역을 할 때, 한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 좀 만나주세요. 모태 신앙인 아이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교회를 못 갔고, 대학을 가더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어머니는 교회의 순장님이셨고 자녀는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그토록 원하던 서울대에 들어간 후,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 청년 중 모태 신앙은 53%라고 합니다. 그중에 구원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할 정도이니,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저절로 계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태신앙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못해' 신앙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 등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별 감동 없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접하며 복음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들뜬 젊은 야성이 생기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부모님보다 공부도 많이 하여 지식도 많이 쌓았으며, 나름 논리적 사고도 잘한다는 젊은 세대는 믿음의 인내, 기도의 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 등에 있어서 부모님 세대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모태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못해 신앙이십니까? 모태신앙은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뽑히거나 죽지 않습니다. 어캐냐 머로 배운 기도, 강요받았던 성경 읽기, 암송, 인상쓰며 부모 옆자리에 앉아 예배했던 어린 시절이 오늘,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못해 신앙'이 진정한 '모태신앙'의 깊은 뿌리로부터 건강하게 성장하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했던 것처럼 크고 우렁찬 소리로, 애틋한 간절함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으로 더욱 성령 충만을 위해 매달릴 때, '못해' 신앙은 진정한 '모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Since my grandmother accepted the gospel preached by missionaries in Pyung-An-Do, our family's faith has been passed down to me and my children. This legacy of faith has been passed down to four generations. My father went to a rural farming area to plant a church, where there was none. Church was home, and home was church to me. I was a child who used to fall asleep on mother's back while worshiping, and was carried home on his father's back. Everything I heard throughout my life was about church, Bible, and things that pertained to ministry. I am a cradle-faith Christian, more accurately, cradle orthodox faith. I had spiritual experience of speaking tongue at 5th grade and knew the Bible. However, when I was a high school senior, in the midst of stress of college entrance exam, I fell into depression and even contemplated a suicide. Through experience of having the Word come into my life, I met God personally, my God not my parents' God. From that perspective, I don't think that parent's faith is automatically inherited. When I was doing college ministry, a mother came to visit me. "Pastor, please meet with my child. My child is a cradle-faith Christian. He wasn't able to attend church during high school due to his studies. He now attends college but he won't go to church." The mother was a cell leader at church. Her child grew up as a cradle faith. After entering his desired college, Seoul University, he had lost faith. According to data from ministry research, 53% of young adult Christians are the cradle faith. Among them, only 33% responded that they attend church due to salvation. That looks like parent's faith does not pass on. In a way, perhaps, the cradle faith may just be for someone who does not have faith. Because gospel message of Jesus, cross, and salvation slowly seeps in without any emotions, it's as if there is no untamed wildness like wild grassland. What I realize as I get older i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may think that they are far more superior in their education, intellect, logical thinking than their parents. I wonder if their patience of faith, amount of prayer, and desperate heart for God are far more inferior to their parent's generation.

Are you of Can't-Do faith? There are definite advantages who were born as a Christian. A deeply rooted tree cannot easily be pulled out or die easily. When you look back carefully, learning to pray by watching, forced to read the Bible, memorizing verses, frowning while sitting next to parents in worship, all these experiences as a child definitely became nourishment for me to spread my own roots of faith. However, for can't-do faith to change to cradle faith, and bear fruit, it is necessary to desperately seek and receive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Jer 33:3) Like that of our parent's generation, as we desperately seek with our prayers,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our loud prayers will transform us into genuine cradle faith.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이충경 목사

기억하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은 날아가 버립니다

이사야 53:4-6

1. 매년 맞는 가족의 생일을 어떤 마음과 의미를 담아 축하해 주나요?

적용하기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1) 예수 십자가는 ()을 깨닫게 합니다. (사 53:4-5)

2)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은 ()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 53:6, 롬 5:8)

3) 예수 십자가는 ()을 살게 합니다. (눅 15장)

3.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영적 무감각증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나요? (사 53:4)

4. 이전의 영적 비참함이 완전 해결되었다는 것에 대해 어떤 기쁨이 있으신가요? (사 53:5, 엡 2:1, 고후 5:17, 고전 15:55)

5월 수요일 예배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

교회를 잘 다니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수고와 열심은 늘 공허하고 생색이 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더구나 관계에서 문제라도 생기면 이런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결정한 것일까?', '무엇 때문이고, 누구의 문제일까?'

하루에도 수없이 고민하고,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신앙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완전한 기준이 바로 '성경말씀'임을 믿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완전한 기준인 성경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감은 무슨 이유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참된 교훈을 받지만, 실제적인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부관계, 자녀와의 대화, 직장과 학교에서의 생활, 크고 작은 결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5월!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으로 연결하고,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갈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하루하루를 경험하면, 이제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발에 등,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119: 103-105)

조태현 목사

1주차: 5월 4일 (창 30:25-43)

"재물과 소유에 대한 적용 찾기"

2주차: 5월 11일 (창 33:1-17)

"원한과 화해에 대한 적용 찾기"

3주차: 5월 18일 (창 37:1-17)

"꿈과 비전에 대한 적용 찾기"

4주차: 5월 24일 (창41:1-13)

"고난과 해석에 대한 적용 찾기"



베델 선교·교육

히즈윌(His Will)을 소개합니다



1. 사역의 목적을 소개해 주십시오.

작년 가을부터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온라인 영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또는 가난하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선교지의 아이들을 위해 베델 히즈윌(His Will) 스쿨 프로젝트를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 2,540만, 본토에서 강제 추방 4천만, 망명자 3,01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중앙아프리카, 중남미, 시리아와 이라크, 남수단, 미얀마 소수민족 등에서 주로 오며 유니세프 통계에 따

르면 전 세계 난민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청소년입니다. 난민들의 자녀는 복음에 대한 개방성이 높으며 자녀들을 복음화하면 한 가정을 복음화하기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난민들은 낯선 땅에서의 거주, 기초 생계유지, 의료 혜택, 자녀 교육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불안정한 미래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델 히즈윌(His Will) 사역은 이러한 난민들의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영어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여 미국 high school entry exam을 패스하게 하여 온라인 accredited high school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2.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베델 히즈윌(His Will) 스쿨 프로젝트는 저녁 8

시 이후에 1-2시간 하실 수 있는 대학생, 직장인, ESL Teacher 등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3.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십시오

- ① 어려운 가정의 상황에서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복하기 힘든 난민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②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난민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지길,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복과 소망을 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 ③ 계속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고 배우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말씀 AGAIN

목사님 설교 은혜 나누시다

매주일 설교가 시작되면 여기저기에서 볼펜을 꺼내 들고 노트를 하거나 핸드폰을 열어 메모하는 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설교 내용을 노트 하거나, 설교 중 인용되는 주옥같은 신앙도서의 제목 혹은 인용구를 적어두기도 합니다. "그때 그 책 제목이 뭐였더라?" 안타까움으로 기억을 더듬는 성도님들을 위해,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인용되는 책 제목, 혹은 신앙 위인들의 인용구, 찬양을 정리하여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베델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Again" 첫단추를 나누려합니다.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C.S. Lewis/홍성사) (2022년 1월 2일 설교 중)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이자 철학자였던 C. S. Lewi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Christianity Today가 선정한 '20세기 기독교 명저 1위'에 오른 책입니다.

Time 잡지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컬은 C.S. Lewis는 회심 이후 "모든 시대에 걸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야말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최상의 봉사이자 아마도 유일한 봉사일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아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유혹받고 하는 행동임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시작되는 싸움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든지, 자신을 하나의 작고 더러운 대상으로 보는 것이나, 우리 자신을 아예 잊어 버리는 것이 좋다. (Whenever we find that our religious life is making us feel that we are good - above all, that we are better than someone else - I think we may be sure that we are being acted on, not by God, not by the devil. The real test of being in the presence of God is that you either forget about yourself altogether or see yourself as a small, dirty object. It is better to forget about yourself al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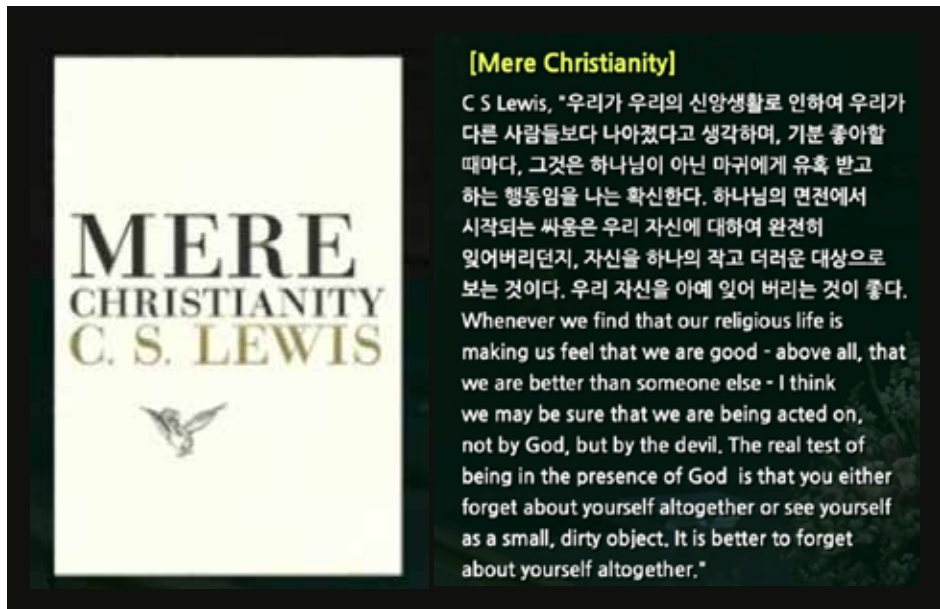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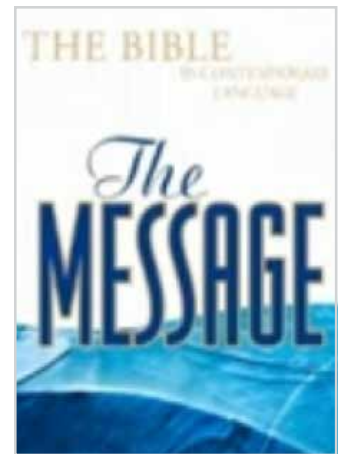
"The Message"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유진 피터슨의 성경

(2022년 1월 2일 설교 중)

신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다가 목회자가 된 유진 피터슨은, 목회 초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아무도 성경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후, 성경 말씀을 사람들의 삶 속에 들여놓아 성경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하는 데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통해 오늘의 언어 속에서 성경의 언어를 듣고, 성경의 언어 속에서 오늘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된 그의 30여 년의 목회는 1990년, 새로운 성경 번역본 집필을 요청한 한 편집자의 편지를 시작으로 10여 년 후에 "The Message"라는 성경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개역개정)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Message)로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ere Christianity]

C S Lewis,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아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유혹 받고 하는 행동임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시작되는 싸움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든지, 자신을 하나의 작고 더러운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아예 잊어 버리는 것이 좋다. Whenever we find that our religious life is making us feel that we are good - above all, that we are better than someone else - I think we may be sure that we are being acted on, not by God, but by the devil. The real test of being in the presence of God is that you either forget about yourself altogether or see yourself as a small, dirty object. It is better to forget about yourself altogether."

찬송가 (통일찬송가 470) "내 평생에 가는길"

(2022년 1월 9일 설교 중)

전염병에 아들을 잃고 화재로 전재산을 잃게 된 스페포드(Spafford) 박사는 선박사고로 네팔을 잃은 뒤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 고통가운데 그 사고현장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알수 없는 평안이 몰려와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예수 청1 수련회

My Name is..



이번 수양회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이 교제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대학생이 된 이후 처음으로 가게 된 수련회였던 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상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로 인한 실망과 아픈 시간으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수련회 가운데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끊임없이 저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수련회 이후 제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축복의,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유경 자매(청1)

이번 수양회는 제가 예수에 오고 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수양회였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수양회 전날에 뚜렷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이 아닌 온전히 남을 위한 기도제목과 가지고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 내내 남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분명 남을 위한 기도였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상처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제 안에 있던 비슷한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 주님께선 제게 섬김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최선을 다해 도망만 다녔었는데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제 일상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과 주님과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가장 편안한 안정감 있는 하루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제게 공동체의 소중함과 중보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유진 자매(청1)

2박 3일간의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

해를 기대하며 베델 수양관을 향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인터넷의 세상은 주님과 저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고, 신앙생활보다는 순간적인 자극을, 찬양보다는 가요에, 말씀보다는 세상의 뉴스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 늘 불안하고 힘들 때,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병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믿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는 시

간이 되었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지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힘을 주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온 기도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 응답받았습니다. 8년 동안 봉사해온 밀알에서, 대학원 준비로 인해

적합한 후임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기를 수양회 기간에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둘째 날 기도 시간을 마치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그동안 기도해왔던 친구가 밀알에서 선생님이로 섬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청년으로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순간 함께 걸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김주영 자매(청1)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배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배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베델 한국학교
여름 캠프로 가자!

지역광고

2022 베델 선교 바자회
복음을 땅끝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2022년 베델 한국학교 여름 캠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신나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대면 4시간, 또는 비대면 2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큐티와 한국어 시간, 한국문화를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큐티로 시작하고, 레벨에 따른 한국어 수업과 한국 역사, 인물, 음식, 도시, 음악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맛있는 점심 식사와 야외 활동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bks.bkc.org 참고

- ▶ 기간: 7월 11일-8월 5일 (매주 월-금, 4주간)
- ▶ 수업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대면),
오전 9시 30분-오전 11시 30분(비대면)
- ▶ 대상: 킨더(만 5세)부터 고등학생
- ▶ 등록 기간: 4월 30일까지
- ▶ 등록비: 대면-\$590, 비대면-\$295
(4월 30일 이후 \$30 추가)
- ▶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두가 선교사로 떠날 수 없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에 작은 힘을 모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미루어 온 바자회 일정이 5월 2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수고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베델 공동체별로 14개 팀을 선정하여 음식 판매 준비에 착수하였고, '예향' 사역팀에서는 밀반찬을, '사모방'에서는 공예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물품 도네이션 접수를 시작합니다.

"때가 아직 낮아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 낮아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 일시: 5월 21일(토) 오전 7시-오후 1시
- ▶ 장소: 베델교회 본당 앞
- ▶ 문의: 김효선 집사 (714)438-9381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월) I	5/1: ①부-우성무	②부-이석희	③부-이성준	④부-김윤현
	5/8: ①부-이여송	②부-이완희	③부-이윤호	④부-김준희
	5/15: ①부-이태영	②부-이종교	③부-이 청	④부-나승호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4,5월) I	4/30: 김현욱	5/7: 김현일	5/14: 김호경	5/21: 문성범
강단꽃(4,5월) I	4/24: 강문구, 김동심	5/1: 노성애	5/8: 박연자	5/15: 이충경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진선(내분비과), 간호사-김 명

다음주 | 의사-한우광(한의원), 간호사-김선미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익적접근지역 I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I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I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I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I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I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I 장익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I 허익현(김영중) 몽골 I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I 성결(양선) 온두라스 I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I 박민수(이순영) 일본 I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I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I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I 황광인(황영숙) 태국 I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I 김송봉(유영선)

창익적접근지역 I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 예배 안내** 주중에 드려지는 공예배로서 수요예배가 매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실황은 저녁 7시에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30일 바ível 클럽 모집**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바ível 클럽을 모집합니다. 셀이 함께 성경통독을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범위: ①사복음서 통독(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간: 30일(월-금)/하루 4장

②역사서(1) 통독(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기간: 30일(월-금)/하루 5장
신청 기간: 5월 9일(월)-6월 3일(금)

신청 방법: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문의: 최호석 집사 (949)236-0042, life@bkc.org

◆ **2022 상반기 베델 셀목자 "셀동산"** 셀식구들을 위해 말씀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셀목자님들을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2022년 상반기 셀목자들의 동산에 초대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나눔, 그리고 교제로 충만할 이번 셀목자 "셀동산"에 모든 셀목자님들은 참석하시어 큰 은혜와 함께 기쁨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14일(토) 오전 7시 30분, Bethel Grace 채플

◆ **특별 프로그램 "걸어서 베델 속으로"(6회)** 베델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팀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궁금했던 사역의 자리를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영 일시: 4월 28일(목) 오전 10시, Youtube 채널을 통해

◆ **멕시코 일일 선교팀원 모집** 멕시코 일일 선교가 5월 14일(토)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모임 일시/장소: 5월 5일(목), 5월 12일(목) 저녁 7시, 조이채플

문의: 고석민 장로 (714)501-7456, 황기원 집사 (213)210-3215

◆ **니카라과 단기선교팀원 모집** 5월 30일(월)부터 6월 4일(토)까지 니카라과에서 의료, 안경, 사진 등의 사역으로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박지학 집사 (213)210-3215

◆ **2022년 베델 선교 바자회** 선교 바자회가 5월 21일(토) 헵시바 예배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품판매 부스를 운영하실 분이나 물품을 도네이션 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면 참고)

일시/장소: 5월 21일(토) 오전 7시-오후 1시 / 교회 코트야드

문의: 김효선 집사 (714)438-9381

◆ **은퇴장로 조찬 모임**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위한 조찬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장소: 5월 14일(토) 오전 7시 30분, 유년부실

◆ **유년부 예배실 장소 변경** 유년부 예배실 수리로 인해 당분간은 초등부 예배실(Gym)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시간은 동일합니다.

◆ **영아부, K-1, 초등부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K-1(3부), 초등부(2,3부) 교사 혹은 TA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 **소망부 교사 모집** 소망부(장애인, Hope Ministry)에서 4월 23일부터 6월 18일까지 베델 토요학교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섬겨주실 선생님과 TA를 모집 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김종현 집사 (949)533-4520

◆ **교회학교 영어 QTin 5월 교재** 많은 봉사자분들의 헌신이 모여 QTin 5월 영어번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에 PDF File로 받아보셨던 QTin 영어교재를 실제 책으로 구매하여 보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4월 24일(주일)부터 실내카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베델 사진관 사진 수령** 부활주일에 베델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코트야드에서 사진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베델 45년사 PDF 온라인 출판** 지난 45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면서 오늘의 사명과 내일의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5주년 역사 편찬팀의 수고로 '베델 45주년사'가 PDF로 출판되었습니다. 베델교회 홈페이지 미디어란의 웹매거진 자료실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요 예배 찬양팀 모집**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지는 베델수요예배 위심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수요예배를 섬겨주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베이스키타, 세컨 키보드, 드럼 등 각종악기

문의: 홍문령 집사 (650)284-9766

◆ **목회자 동정** 유아부에 티나 정 인턴 전도사를 임명합니다.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기도해 주세요.**

- K국 단기선교가 4월 17일(주일)-27일(수)까지 있습니다.

- T국 아웃리치와 K국 단기선교가 4월 20일(수)-30일(토)까지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신금학 님(운광미 권사의 모친)께서 4월 19일(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호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The joy of resurrection will be flown away if you don't remember it.

Isaiah 53:4-6

- 1.** How do you celebrate your family member's birthday every year? With what kind of heart and meaning?

Apply to Life



- 2.** Summarize the meaning of Jesus' cross that we must remember.

1) The cross of Jesus makes us realize (). (Isa 53:4-5)

2) The cross of Jesus makes us realize that God is (). (Isaiah 53:6, Romans 5:8)

3) The cross of Jesus makes us live (). (Luke 15)

- 3.** If we have spiritual insensitivity that needs to be overcome, in what ways can we do it? (Isa 53:4)

- 4.** Our previous spiritual suffering has been completely resolved. What kind of joy do you have on that? (Isaiah 53:5, Ephesians 2:1, 2 Corinthians 5:17, 1 Corinthians 15:55)